

장성군 주민 주도 농촌체험·치유여행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모임 연수 지역 특성·예술·관광 자원 기반 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한 활동

장성 주민이 주도하는 '장성군 신활력플러스 4기 활동 모임'이 올해는 농촌 체험과 농촌형 치유 여행 등을 추진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장성군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4기 활동 모임(액션 마린)이 최근 축령산 편백숲에서 공동 연수를 열고 이 같은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 연수에는 올해 4기 활동모임체로 선정된 9개 그룹과 사업단이 참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 유·무형 자산과 자생 조직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공동체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장성군은 지난 2019년 축령산을 활용한 '편백숲 어울림 치유 여행 프로젝트'가 선정된 이후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올해 4기 활동모임체는 지역 특성과 예술,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관광 분야에서는 마을 공동체가 직접 야영장과 농촌 체험을 운영하는 '달빛마을'과 농촌형 치유 여행을 선사하는 '장성군 치유농업협회'가 눈에 띈다.

예술과 관광을 연계한 사업도 추진한다. 장성



올해 관광·예술 분야 등에서 다양한 주민 주도형 활동을 할 '장성군 신활력플러스 4기 활동 모임' 9개 그룹이 축령산 편백숲에서 공동 연수를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역사·문화를 소재로 전통장극 공연을 펼치는 '정강장극단', 장성 관광을 소재로 기념품을 제작하는 '에이메이징', 예술적 창작 작업의 산실이 될 '장성예술창작소', 편백 공예품을 제작하는 '재아티'가 장성 예술의 외연 확장에 도전한다.

장성을 무대로 한 공연과 작품도 만들어진다. '문불여장성 인문학당'은 영화제와 인문학 강좌를 기획·운영한다. '라이프팜'은 장성 곳곳을 소재로 다양한 영상물을 제작한다. '한국미디어아트진흥회 장성지회'는 '미디어아트' 작품을 만들고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장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은 4기 활동모임체와 손잡고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수단 구축·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가을에는 이들 활동모임체와 '삼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4기 활동모임체가 장성 관광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오기를 기대한다"며 "장성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흥군 문학관광기행특구 지정 내년까지 연장

2008년 지정된 이후 16년간 유지

장흥군 문학관광기행특구 지정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장흥군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3차 계획변경'을 승인받아 특구 지정 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됐다고 23일 밝혔다.

문학관광기행특구는 지난 2008년 4월25일에 최초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16년간 유지되고 있다.

이번 3차 계획변경에서는 기존 특구 면적 59만 7571㎡에서 옛 장흥교도소 터 등이 포함돼 6만 154㎡ 넓어진 65만725㎡로 결정됐다.

총사업비는 365억200만원(2008-2023년)에서 2년간 59억8400만원 늘어난 424억8600만원이 됐다. 특히 문학 행사 추진 때 도로 점용과 문학 관련 시설 설치 등 예산이 적용되게 됐다. 도로법 61조(도로의 점용허가)와 건축법 20조(가설건축물)의 규제 특례가 추가되면서다.

올해를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도약의 해로 선포한 장흥군은 문학관광기행특구 지정이 연장됨에 따라 문학관광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지난 2월에는 미백 이정준 작가의 '선학동 나그네' 작품 배경지가 된 선학동 마을이 유엔 투어리즘(UN Tourism) 최우수관광마을을 대한민국 후보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안공 예정인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 공간은 '문화·예술타운'으로 재탄생한다.

이곳에는 장흥교도소 자료관, 교도소 역사관 등이 들어서고 영화·드라마 등 영상촬영, '장흥문학영화제', 시(詩) 활용 치유 '포엠스테이테마톤', 동아리형 농사 체험 '마음은 콩밭' 등이 진행된다.

장흥군은 올해 정남진 은하수도 관광명소 조성사업을 시작한다. 오는 2027년까지 정남진 해안문화길과 연계해 전망시설과 촬영 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부르면 오는' 화순 콜버스 시범운행 시작

요금 성인 900원, 초·중·고생 100원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화순 콜버스<시선>이 지난 20일부터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화순군은 화순읍 버스정류장 91곳을 대상으로 15인승 버스 3대의 '화순 콜버스'를 한 달간(7월 19일) 운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승객은 바로DRT 호출 앱을 통해 버스를 불러 원하는 정류장까지 갈 수 있다.

요금은 기존 버스와 같이 교통카드 이용 때 성인 900원, 초·중·고생 100원이다. 현금으로 내면 성인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에 탈 수 있다. 하차 시각을 기준으로 30분 이내 2회 환승이 가능하며, 동일 노선은 제외된다.

화순군은 지난 5월24일 화순읍사무소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콜버스에 대한 홍보를 이어왔다.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 주민을 위해 읍내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관 등을 찾아가 이용 방법을 안내



했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화순 콜버스는 시범운행을 통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가상 정류장을 운영하기 위해 시범 운행한다"며 "읍내 대중교통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많은 주민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사암 박순 선생 모신 나주 월정서원 '청렴성지' 새단장

6억원 들여 대대적 보수·정비

조선 중기 명재상인 사암(思菴) 박순을 배향하는 사액서원인 나주 '월정서원'이 올해 보수 정비된다.

나주시는 금성산 월정봉 아래 노안면 광곡마을에 있는 월정서원(月井書院·향토문화유산 16호)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 정비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명현(名賢)을 제사하고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각지에 세워진 사설 기관이다.

월정서원은 조선 중기 문신이자 영의정, 좌의정 등 14년간 재상을 지낸 사암 박순(1523-1589) 선생을 추모하고자 1659년 창건됐다.

박순은 권력과 재물을 탐하는 일 없이 바른 정치를 위해 늘 임금에게 직언했으며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던 명재상이자 청백리로 후세에 존경받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월정서원은 1583년 창건된 지역 최초 사액서원인 경현서원(景賢書院)과 쌍벽을 이루는 나주의 대표 사액서원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조선 중기인 16-17세기 나주지역 사족 동향과 서원향전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 유적으로 꼽힌다. 임금이 이름을 지어 새긴 편액을 내린 '사액



나주의 대표 사액서원(향토문화유산 16호)인 월정서원이 올해 하반기까지 보수 정비에 들어간다.

서원'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당과 내삼문이 오래돼 지붕 누수와 부식 등이 진행되고, 담장이 무너지는 등 대대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나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와 지난해 반부패·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월정서원을 대표 청렴 유적지로 조성하기 위한 보수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 8월 전력거래소에서 청렴 담

당 부서·임직원을 대상으로 박순 선생의 생애를 재조명하는 청렴 특강을 열기도 했다.

월정서원 보수정비는 사당·내삼문 해체보수와 주변 담장 정비를 골자로 총사업비 6억원(도비 40%·시비60%)이 투입될 예정이다.

나주시는 월정서원에 대한 정비를 올 하반기 마무리하면 나주를 대표하는 청렴 유적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군 음천 토하 옛 명성 되찾기 팔 걷었다

신규 서식지 조성·지역 축제 연계

강진군이 청정 수산물 토하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음천면을 중심으로 신규 서식지를 조성하고 지역 축제와 연계할 방침이다.

23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에서 토하를 생산하는 어가는 모두 28곳으로, 37ha 면적에 연간 9t 이상 생산하고 있다.

매출액은 9억원으로, 고소득 수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강진에서 토하가 주로 생산되는 곳은 음천면이다. 강진원 강진군수 등은 지난 20일 음천면 기차리 골짜기에 새로 조성된 토하 서식장을 찾아 생산량 확대를 위한 논의를 했다. 이날 논의에는 토하

양식 어업인과 관계 공무원이 25명이 참석했다.

토하 양식 어업인들은 이날 신규 토하서식장 조성하고 갈수기 대비용 관정(우물) 개발, 유해조수 대비 그물망, 용배수로 정비, 음천 토하 단일화 브랜드 개발, 숙성기·양념 혼합기 등 현대식 기자재 등 각종 지원을 요청했다.

강진군은 또 음천 토하의 명성을 찾을 계획도 밝혔다. 토하 생산량을 늘리고 도시민 입맛에 맞는 가공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지역 축제와 연계해 음천 토하를 대중화, 전국화한다.

토하는 새뱅이과의 민물새우로, 임금 진상품이었던 청정 수산물의 대명사로 불린다. 음천 토하는 두메산골 맑은 물에서 자연적으로 살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지은이 | 조선의
펴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